



지오투어리즘
제 4 강 국내 지오투어리즘
사례연구

SWOT 분석

- ◆ 지형·지질자원에 대한 전문 가이드 해설 제공
- ◆ 제주도 성산일출봉 지오투어리즘
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형
- ◆ 강원도 DMZ 지오투어리즘
 - 대학 주도형
- ◆ 호야 지리박물관 지오투어리즘
 - 개인 전문가형
- ◆ 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
 - 지역 주민 참여형

호야 지리박물관 지오투어리즘

◆ 개인 전문가형 지오투어리즘

- 국내 최초 지리전문 박물관
-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소재
- 퇴직 지리교사가 건립
- ‘지리 트레킹’ 운영
 - ◆ 사전 참가신청을 통한 영월 지역 일대 답사
 - ◆ 영월의 지형·지질 자원을 직접 체험
 - ◆ 소책자와 전문가이드 해설 형태로 운영

◆ 강점

- 지오투어리즘 활동이 박물관 체험학습과 병행하여 진행
 - ◆ 박물관: 지형·지질 관련 다양한 정보 관찰, 체험
 - ◆ 지리트레킹: 현장에서 직접 확인
- 지리트레킹 운영, 전문가이드 해설비 징수
 - ◆ 향후 전문 가이드 관련 지향점?

◆ 약점

- 정부 및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족
 - ◆ 박물관 관리, 전문 가이드: 개인 전문인력 의존
- 지리 박물관과 지오사이트 간의 접근성
 - ◆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불가
-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 부족
 - ◆ 지형·지질 관련 학계의 연구활동 연계를 통한 새로운 지오사이트의 개발과 프로그램 보완 발전 필요

◆ 기회

■ 강원도 영월의 다양한 지형·지질 경관

- ◆ 다양한 카르스트 지형(석회암 동굴, 돌리네, 트라로사 토양, 싱크홀, 타워 카르스트 등)
- ◆ 다양한 하천지형(하안단구, 구하도 지형, 감입사행 하천, 포트홀 등)
- ◆ 폐광의 관광 자원화

■ 지오파크 조성 계획

- ◆ 카르스트 지오랜드 조성: 지오파크, 지질문화박물관, 카르스트 교실, 상설 자연사학습장 등



◆ 위험

- 지형·지질 자원의 훼손 가능성
 - ◆ 야외 체험활동 중심의 지오투어리즘
 - ◆ 개인에 의한 운영으로 지형·지질 자원 보전에 소홀해질 가능성?
 - ◆ 환경 보전 인식과 자원의 훼손 방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

제주도 거문오름 지오투어리즘

◆ 지역 주민 참여형 지오투어리즘

- 세계자연유산 등재,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
- 거문오름 탐방
 - ◆ 사전예약제 운영
 - ◆ 자연유산해설: 분화구 코스, 자율탐방 코스
 - ◆ 현무암의 파호이호이 용암과 아아 용암
 - ◆ 곳자왈: 곳(숲), 자왈(돌무덤)
 - ◆ 용암협곡, 화산탄, 풍혈, 수직동굴

◆ 강점

■ 마을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

- ◆ 관광초기 단계 주민 참여의 폭 결정
- ◆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운영으로 주민 참여 유도

■ 지역 주민에 의한 지형·지질 유산 관리

- ◆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
- ◆ 예약제 운영과 바람직한 탐방문화, 전문가이드 활동 정착

■ 지역 주민을 지오투어리즘 가이드로 활용

- ◆ 지역성(생태경관, 역사 문화) 및 지역애→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해와 존중, 융합의 가능성
- ◆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

◆ 약점

- 지오투어리즘 가이드의 경제적 기반 취약
 - ◆ 자원봉사 형식의 가이드 운영
 - ◆ 전문 가이드의 채용(계약직, 정규직), 해설의 유료화→지속적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
-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수교육 부족
 - ◆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, 관련 대학과의 연계 필요
- 지역 소득창출방안 취약
 - ◆ 특산품 vs 보편적인 상품

◆ 기회

- 성공적인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개최
 - ◆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
 - ◆ 지형·지질 자원의 활용 방향성 제시
 - ◆ 단순한 경관 감상 중심의 관광에서 지오투어리즘으로 발전하는 계기
- 대규모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
 - ◆ 홍보전시관, 영상체험관, 교육 및 학술 연구실, 관련 국제기구 사무실 등→거문오름 탐방 이전 단계에서 지형·지질학적 지식제공을 위한 다양한 해설 매체 제공

◆ 위험

- 낮은 관광선호도와 관광 인프라
 - ◆ 탐방 이후 관광객 타 지역 유출
- 지형·지질 자원 보존관련 적용 법규 부재
 - ◆ 스코리아콘의 지형학적 특성: 미고결 상태의 퇴적층으로 탐방객에 의한 훼손과 파괴 가능성
 - ◆ 전문 가이드 탐방의 의무화, 적정 수용 인원 관리, 지역주민과 관리자의 훼손행위 제재 권한 부여 등의 조치 필요